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2(土)	13(日)
비후감 4/7℃	구름 많음 0/4℃

#### News

- 무안국제공항 활기 띠다 ②
- 문학상 받은 소록도 공보의 ③
- 최경주 첫날 단독 선두 18



#### Books

- 그림 값에 숨겨진 이야기 14

#### Entertainment

- 불황 음반시장에 햇살 ⑧
- '현의 노래' 주경중 감독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다시마 13



유형별 장학금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ub.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ac.kr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시·도지사들과 홍보대사들이 힘찬 출발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태 광주시장, 가수 박주희, 텔런트 유인촌·임현식, 디자이너 앙드레김, 텔런트 최불암·강부자, 박준영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 “맛따라 멋찾아 남도 오세요”

어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27개 시·군·구 서울서 관광홍보 박람회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선포식과 홍보 박람회가 11일 서울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열렸다.

"맛을 따라 멋을 찾아! 광주·전남 2008"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채일병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여행·레저 전문가, 남도를 사랑하는 모임회원, 출향 인사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는 광주·전남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디자이너 앙드레김, 텔런트 유인촌·최불암·강부자·임현식, 가수 박주희 등 6명을 위촉했다.

선포식 후에는 500여명의 관광객이 1박2일 일정으로 낙안읍성과 보성 녹차밭으로 남도여행을 떠났다.

시·도는 이날부터 3일간 광주·전남 27개

시군구가 참가하는 초대형 관광홍보 박람회도 열어 남도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박람회에서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의 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남도 특산물전'과 각 시군의 '향토 음식 시식코너'도 함께 운영한다.

시·도는 관광 트렌드가 가족 위주의 체험·생태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등 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내국인 3천300만명, 외국인 14만명의 유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위해 국내외 대형 박람회 등 각종 교역·교류전에 함께 참여해 지역을 홍보하는 한편, 광주와 전남 관광지 150곳을 선정, 이들 관광지를 일주하는 '남도 투어패시'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2013년 광주U대회 유치 중책 조선대 김철주 교수

## 대구대회 경험 살려 꼭 광주 유치

2003년 대구 U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 전문가

"허허, 사람들, 등잔 밑이 어두워도 환한 어둠네, 조선대 김철주 교수가 있잖아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염두에 둔 광주시청 공무원이 지난해 전국 체전 참가를 위해 광주에 온 박상하 국제정규연맹 회장에게 실무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박 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조선대 체육학과 김철주(53·사진) 교수는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2003년 대구 하계U대회'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다. 그런 인물이 광주에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답답할 만했던 것이다.

영광이 고향인 김 교수는 조선대 체대를 졸업한 이듬해인 1981년 대한체육회에 입사해 국제과장, 국제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사무차장까지 역임한 체육행정 전문가이다. 20여 년 동안 부산아시아게임, 대구U대회 등 국제대회와 IOC 총회,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 총회 등 유치 실무를 맡았다. 조선대에는 2003년 4월 임용됐다.

"광주 U대회 유치를 도와 달라는 연락이



왔을 땐 뭐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고향에서도 국제대회가 꼭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석달 전부터 유치신청서를 만드는 일에 매달려 최근 완성했고, 이제 곧 영어·불어 번역본이 나옵니다."

신청서를 만드는 일은 U대회 유치를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180쪽 분량의 신

청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무국으로 전해져 집행위원들에게 광주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의 '첫 인상'인 것이다. 신청서에는 광주의 기후·인구, 법적 측면, 대회기간 동안 정치 일정 등 FISU가 보내온 18개 항목 53개 질문에 대한 답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김 교수는 "대구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경쟁도시가 터키 이즈미르와 캐나다 에드먼튼 등 3곳으로 지금 보다 적었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광주의 최대 강적으로 6곳의 경쟁 도시 중 러시아 콰잔과 캐나다 밴쿠버를 꼽았다. 콰잔은 석유도시여서 물량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밴쿠버는 대구도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

김 교수는 김윤석 정무부시장이 이끄는 '광주시 테스크포스팀'과 손을 맞춰 3월 신청서 제출→4월 현장실사→5월 말 유치투표까지 휴일도 만나고 땀 흘려왔다.

그는 "김 정무부시장이 기획예산처 재직시절 '2010세계박람회' 여수 유치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치전략 전반을 조율하고 있다"며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신당·한나라 일부 의원

## “해양부 폐지 반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신당 김성곤 이영호 주승용 김춘진 윤원호 제종길 서갑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의원모임'을 갖고 인수위측에 해양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반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서도 해양부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연구단체인 '국회바다포럼' 소속 신당 이영호,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등도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인수위의 시각은 지나친 단견이며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비전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해양부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는 신당 윤원호, 장항숙, 조경태, 조성태, 최철국 의원 등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해체는 전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세국'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